"도심 곳곳 공사 중"… 도시철도 2호선 안전점검

광주시, 24~26일 외부전문가 합동 유덕동 차량기지 본선 6개 공구

광주시가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철 도 2호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여부를 집중 점검

19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 사의 부실시공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야 별 외부전문가와 함께 7개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1단계 건설공사 구간 17km로, 유덕동 차량기지와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 ~광주역에 이르는 본선 6개 공구까지 총 7개 건설 현장이다.

합동점검은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 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목시공, 토질기초, 건축시 공, 전기안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토목시공기술 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전 기설비기술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 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버팀 보 등 흙막이 가시설 설치 상태 ▲크레인 등 건설 기계 안전관리 이행 실태 ▲배수로, 침사지, 사면 보호시설 등 설치 상태 ▲통신선, 전력선,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건 물 붕괴사고와 올해 1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 축공사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없도록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특 성상 개착식 공법(땅 위에서 흙을 파내 구조물을 설치한 후 되메우는 공법)으로 토지를 굴착한 후 지하에서 대부분 작업이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해 지하작업 안전 장치와 건설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

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 록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사 항은 현장에서 긴급 안전조치 후 소관부서를 통해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정대경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심에 서 대형 건설공사가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각종 안 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전문성이 확보된 외 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에 파악해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건설근 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집중 하겠다"고 말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자 공모 광주시, 행정소송 승소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민간 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서진건설에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광주도시공사는 당좌 수표를 서진건설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고 19일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간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 연됐지만, 이번 행정소송 승소로 150만 광주시민 의 기대와 염원이 깃들어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 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동구 학동·서구 동천동 미세먼지 안심구역 2곳 추가

광주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숨 쉴 수 있 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동구 학동'과 '서 구 동천동'을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집 중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안심구역 시범사업으로 2020년 4월 서구 금호2동(면적 1.19㎢)에 대해 국·시비 1억8000만원을 지원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미세먼지 에어커튼 62곳을 설치하고, 주민센 터와 인근 버스정류장에는 미세먼지 쉼터와 식물 벽을 조성해 주민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자치구의 사업 참여 신청과 주민 의견수 렴 등을 거쳐 동구 학동(면적 0.8km)과 서구 동천 동(면적 1.17㎢)을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선정 하고, 시·구비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22곳에 에어커튼을 설치해 실내로 들어오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차단하 고, 내·외부 공기가 섞이는 것을 막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기업 컨설팅 참여 20개사 선정 광주 상생일자리재단

광주 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형 일자리 기업 컨설팅에 참여할 20개 사를 선정했다"고 19일 밝

선정된 기업은 코비코, 대유에이텍, 한국알프 스, 성진글로벌, 우성정공, 오택캐리어 등이다.

재단은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 책임경 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 와 관련해 인증 취득 등 컨설팅을 하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 기업 인증 대상은 오는 7월 모집

인증 기업은 경영 안정 자금 한도 증액, 신용보 증재단 무역보험 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 진흥자금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화지점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광주시, 26일까지 353명 모집

광주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2022년 청년마 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 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 을 발급해 주고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방식 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 상 34세 이하 청년(출생연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 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은 우선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총 353명(동구 28명, 서구 74명, 남 구 46명, 북구 106명, 광산구 99명) 예정으로 서 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모집 기간 내 주소 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구비서류 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3개월(10회)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과 사 전·사후검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심리상담은 이용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회당 50분, 사전·사후 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는다. 사후검사 결 과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판정을 통해 최 대 12개월까지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유형은 A형과 B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적인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하 는 경우는 A형을, 서비스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거 나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B형 을 선택하면 된다.

A형은 매회 5만4000원, B형은 6만3000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원된다. 본인 부담금은 A형 6000원, B형 7000원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서비 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서비스 가격 전액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 5개 자치구 복 지정책과, 광주시 사회복지과, 광주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미꽃으로 뒤덮인 풍암호수공원

19일 오후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에 만개한 장미꽃 사이로 행인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산골마을 의료·복지 서비스 '전남행복버스' 확대

전남도. 오지·도서·산간벽지 찾아가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전남도가 오지, 도서, 산간벽지 등 지리적 취약 지역에 의료・복지・문화 서비스를 하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행복버스 는 교통과 의료환경이 열악해 기본적 서비스를 받 지 못하는 도민에게 맞춤형 원스톱 의료・복지 서비 스를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는 산간지역 등 100개 마을 방문을 목표로 보건・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

행복버스는 의료·복지시설 장비를 갖춰 ▲혈압· 당뇨검사 ▲인지(치매)검사 ▲체성분 검사 등 기 초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민원과 법률상담 서비스 를 한다. 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장애 인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야외 공간에 별도 부스를 마련해 ▲이・미용 서비스 ▲네일아트 ▲손발 마사지 ▲틀니・안경 세 척 ▲체험(만들기)활동 등 서비스도 이뤄진다. 월 ·수·금, 주 3회 운영하며, 지금까지 28개 마을을 찾 아가 주민 1000여명에게 의료·복지·문화서비스를 했다.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낸 도민에게 버 스이름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파하고

지난 13일에는 도선에 버스를 싣고 목포 율도마 을을 방문해 지리적 문제로 의료·복지서비스를 받

기 어려운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 행복버스는 코로나19 대응에도 앞장섰다. 지난 2월 확진자 급증으로 운영을 중단한 대신 장 애인시설 18개소, 노인시설 28개소를 찾아가 신속 항원검사(617명)를 실시하고, 키트1273개, 마스 크 3600개, 소독제 430개 등 방역용품을 지원했 다. 또 코로나19 임시(이동)선별검사소를 44회 운 영,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 양성자 33명을 찾아가 코로나19 확 산 방지에 큰 역할을 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행복버스가 지 역을 찾아주는 것 자체로도 주민들이 무척 감사해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직접 찾아뵙고 건강 등 을 살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